

#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 의 신학적 중요성과 필요성 고찰<sup>1</sup>

박재은  
(총신대학교)

## [초록]

루이스 벨코프는 칭의를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로 그 영역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구분법은 일찍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글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카이퍼 역시 칭의를 객관적 칭의(능동적 칭의)와 주관적 칭의(수동적 칭의)로 구분해 설명하기 때문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능동적 선언이며, 수동적 칭의 개념은 하나님의 능동적 칭의 선언이 믿음을 통해 죄인의 양심과 의식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신학적·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레인 팁턴에 의해 그 개념이 비판 받고 있다. 본고는 팁턴의 비판을 향한 신학적 반응으로 팁턴이 능동적 칭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신학적·실천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개념이다.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영역에서 하나

논문투고일 2018.07.27. / 심사완료일 2018.08.23. / 게재확정일 2018.09.03.

<sup>1</sup> 본고는 2016년 4월 9일(토) 총신대학교에서 열린 개혁신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논문임을 밝힌다.

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훌륭한 신학적 장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굳건케 만들뿐 아니라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능동적 칭의, 루이스 벌코프, 아브라함 카이퍼, 레인 팁턴, 칭의론

## 1. 들어가는 말

루이스 벌코프(Louis Berkhof, 1873-1957)가 지적하듯 일반적으로 ‘칭의’(justification)라는 단어를 쓸 때는 ‘수동적 칭의’(passive justification) 개념을 염두하고 쓴다.<sup>2</sup> 즉 죄인은 스스로의 능력 하에 능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해 수동적으로 의롭다 칭해지는 혹은 여겨지는 것이다. 수동적 칭의는 믿음을 통해 죄인의 양심과 의식에서 법정적으로 이루어진다.<sup>3</sup>

일반적으로 수동적 칭의는 인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다양한 형태로 그 의미가 변질되기도 했다.<sup>4</sup> 예를 들면 인간의 믿는 행위에 칭의의 무게중심을 놓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sup>5</sup> 인간의 행함과 순종을 칭의의 조건으로 삼으려 시도한 신율법주의(neonomianism) 칭의론,<sup>6</sup> 믿

2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London: Banner of Truth Trust, 1966), 517 (이후부터는 ST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3 Berkhof, ST, 517.

4 다양한 형태로 그 의미가 변질된 칭의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필자의 논의를 참고하라.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17-104.

5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서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Theodoor Marius van Leeuwen, Keith D. Stanglin, & Marijke Tolsma, eds.,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Leiden: Brill, 2009).

6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의 구원론 가운데서 신율법주의적 요소가 있음

음과 행함의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한 페더럴 비전(Federal Vision) 칭의론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sup>7</sup> 이러한 칭의론들의 핵심 문제는 칭의의 논의 속에서 인간의 믿는 행위 혹은 순종하는 행위를 칭의의 ‘조건’(condition)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칭의는 인간의 행위에 근거할 수 없다(갈 2:16).<sup>8</sup>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 점을 바로 ‘능동적 칭의’(active justification) 개념이 웅변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벨코프에 의하면 능동적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sup>9</sup>이다. 능동적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죄인의 믿음 혹은 수동적 칭의 개념보다는 논리적으로 앞서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칭의 개념은 칭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강조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개념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신학적·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필라델피아) 조직신학 교수인 레인 티턴(Lane Tipton)에 의해 그 개념이 비판 받고 있다.<sup>10</sup> 본고는 티턴의 비판에 대한 신학적 반응<sup>11</sup>으로 티턴이 총 세 가지로 능동적 칭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을 지적했던 J. I. Packer,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0)를 참고하라.

7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18-26, 33-36, 61-74. 페더럴 비전에 대한 훌륭한 안내서로는 E. Calvin Beisner, ed., *The Auburn Avenue Theology, Pros and Cons: Debating the Federal Vision* (Fort Lauderdale: Knox Theological Seminary, 2004)을 참고하라.

8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개역개정역).

9 Berkhof, *ST*, 517.

10 Lane G. Tipton, “Biblical Theology and the Westminster Standards Revisited: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sola fid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5, no. 1 (January 2013): 1-12. 티턴의 이 글은 그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취임했을 때 했던 취임 연설(inaugural address)이다.

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sup>12</sup>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벗겨질 때 비로소 능동적 칭의 개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본고의 주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신학적 오해를 제거한 후 이 개념의 신학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고(再考)해 보는 것이다.

본고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별코프의 빛 아래서 과연 능동적 칭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립을 할 것이다. 보다 더 엄밀한 개념 정리를 위해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말하는 능동적 혹은 객관적 칭의 개념을 함께 소개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다.<sup>13</sup> 그 후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틱턴의 비판을 살펴 본 후 틱턴의 주장에 대해 재 비판을 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칭의 개념의 신학적실천적 중요성을 살펴본 후 균형 잡힌 칭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능동적 칭의 개념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 11 틱턴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반응으로는 필자의 박사논문 출판본을 참고하라. Jae-Eun Park, *Driven By God: Active Justification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Bavinck, Comrie, Witsius, and Kuyp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 76-81(출간예정). *Driven by God*은 필자의 박사논문인 Jae-Eun Park. "Driven by God: Active Justification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Bavinck, Comrie, Witsius, and Kuyper" (Ph.D. dis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16)의 출판본이다.
- 12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오해는 비단 레인 틱턴 만의 문제는 아니다. 티모시 프라이스(Timothy Price)도 그의 글에서 능동적 칭의 개념을 영원 칭의 개념과 동일선 상에 두고 잘못 이해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Timothy S. Price, "John Calvin and Herman Bavinck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Relation to Ethics," in *Since We Are Justified by Faith: Justification in the Theologi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d. Michael Parsons (Milton Keynes: Paternoster, 2012), 138-49. 이 뿐 아니라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오해는 교회 역사 속에서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반율법주의자들의 칭의론 속에서 혹은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의 칭의론 속에서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오해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Park, *Driven By God*, 67-98;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26-33, 36-41.
- 13 이를 위해 Park, *Driven By God*, 197-203의 논의를 차용했음을 밝힌다.

## II. 능동적 칭의 개념

### 1. 루이스 벌코프의 빛 아래서 보는 능동적 칭의 개념

능동적 칭의 개념은 종교개혁 후기 개혁파 정통주의(Post-Reformation Orthodoxy) 시대부터 꾸준히 논의 되어 온 개념이다.<sup>14</sup> 하지만 본고는 능동적 칭의 개념의 신학적 원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데 주목하기보다는<sup>15</sup> 틱턴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벌코프의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할 것이다. 먼저 벌코프는 능동적 칭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벌코프는 능동적 칭의 개념을 다음과

14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17세기 개혁 신학자들이 능동적 칭의 개념을 언급하는 부분들을 참고하라. Francis Turretin,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ed. James T. Dennison, trans. George Musgrave Giger (Phillipsburg: P&R Publishing, 1992), 2:669, 684; Herman Witsius,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trans. William Crookshank (Edinburgh, 1803), 1.2.7.16, 1.3.8.45, 47-48, 51-52, 56-57, 2.7.16; Wilhelmus à Brakel,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ed. Joel R. Beeke, trans. Bartel Elshout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2:376-81; Bartholomäus Keckermann, *Systema S.S. Theologiae: Tribvs Libris adornatum* (Hanoviae: Antonius, 1610), 3.7; Daniel Wyttenbach, *Tentamen theologiae dogmaticae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tae* (Francofurti ad Moenum: Andreae et Hort, 1747), 2:939; Johann Heinrich Heidegger, *Corpus theologiae christianaе*, vol. 2 (Zürich: Ex officina Heideggeriana, 1732), 22.78-79 (303); Leonard Rijssen, *Summa theologiae elencticae completa et didacticae quantum sufficit* (Bern: Georgii Sonnleitneri, 1676), 14 (184-98); Thomas Halyburton, *An Essay on the Ground or Formal Reason of Saving Faith. to Which Are Added, 2 Essays, Illustrative of the Subject of Justification* (London: James Nisbet & Co., 1865), 101-04; Samuel Maresius, *Collegium theologicum sive systema breve universae theologiae, comprehensum octodecim disputationibus* (Geneva: Ioannes & Samuel De Tournes, 1662), 11.58 (255-56); Johannes Maccovius, *Collegia theologica quae extant omnia, tertio ab auctore recognita, emendata & plurimis locis aucta, in partes duas distributa* (Franeker: Ulderici Balck, 1641), 129, 153, 423-25; Johannes Maccovius, *Scholastic Discourse: Johannes Maccovius (1588-1644) o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Distinctions and Rules*, trans. Willem J. Van Asselt et al. (Apeldoorn: Instituut voor Reformatieonderzoek, 2009), 231-37.

15 능동적 칭의 개념의 신학적 원류에 대해서는 Park, *Driven By God*, 67-98을 참고하라.

같이 설명한다.

능동적 혹은 객관적 칭의: 이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칭의 개념이다. 이는 주관적 칭의의 기초가 되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행해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 선언은 하나님께서 공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죄인을 사면하는 선언이 아니라, 죄인의 경우를 참작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선언이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의롭다고 선언된다. 이러한 화해 과정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배제하는 절대적 주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를 칭의의 완전한 근거로 인정하는 의로운 재판장으로, 그리고 값없이 용서하고 죄인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아버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객관적 칭의는 논리적으로 신앙과 수동적 칭의에 선행한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민는다*.<sup>16</sup>

별코프가 설명하는 능동적 칭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능동적 칭의란 하나님의 법정(*in foro Dei*)에서 일어나는 객관적

16 "ACTIVE OR OBJECTIVE JUSTIFICATION. This is justification in the most fundamental sense of the word. It is basic to what is called subjective justification, and consists in a declaration which God makes respecting the sinner, and this declaration is made in the tribunal of God. This declaration is not a declaration in which God simply acquits the sinner, without taking any account of the claims of justice, but is rather a divine declaration that, in the case of the sinner under consideration, the demands of the law are met. The sinner is declared righteous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imputed to him. In this transaction God appears, not as an absolute Sovereign who simply sets the law aside, but as a righteous Judge, who acknowledges the infinite merits of Christ as a sufficient basis for justification, and as a gracious Father, who freely forgives and accepts the sinner. This active justification logically precedes faith and passive justification. We believe the forgiveness of sins." Berkhof, *ST*, 517 (강조는 원문, 한글 번역은 『별코프 조직신학』, 권수경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769를 참조했음. 이후 한글 번역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였음).

칭의라는 것이다.<sup>17</sup> 객관적인 칭의라는 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가 칭의의 어떠한 조건이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sup>18</sup>

둘째, 객관적 칭의인 능동적 칭의 개념은 논리적으로 믿음에 우선한다. 즉 능동적 칭의 개념은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능동적 결정을 통해 죄인의 칭의가 객관적으로 선언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주관적 믿음에 선행한다. 하지만 믿음의 우선순위를 논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는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믿음과 능동적 칭의 개념을 시간적 순서로 이해할 때 파생되는 잘못된 신학적 결과는 믿음 전 영원에서 모든 칭의가 완료된다고 하는 ‘영원 칭의론’(eternal justification 혹은 justification from eternity)이다.<sup>19</sup>

셋째, 능동적 칭의는 수동적 칭의의 근거가 된다. 즉 죄인의 양심에서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것(수동적 칭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칭의 구분법을 사용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이 두 개념이 개념적으로 날카롭게 분리되는 구분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벌코프는 다음과 같이 주의를 표한다. “양자[즉 능동적 칭의와 수동적

17 그러므로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였던 헤르만 비치우스(Herman Witsius, 1636-1708)는 능동적 칭의가 “하늘의 법정에서”(in foro coeli)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Witsius, *De oeconomia foederum Dei cum hominibus* (Leeuwarden: J. Hagenaar, 1685), III.VIII.LX (297).

18 이후에 살펴볼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러한 ‘객관적 칭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파했던 신학자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카이퍼는 카이퍼가 살았던 당시 팽배했던 근대주의(Modernism)를 주관주의적 인간중심주의 사상으로 규정했고 이 주관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학의 모든 영역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신학자였기 때문이다.

19 영원 칭의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칭의의 국면이 철저히 배제됨에 있다. 즉 영원 칭의론에서 믿음의 역할은 전무하다. 영원 칭의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41-46. 영원 칭의론을 반율법주의적 시각 하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한 글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bert J. McKelvey, “‘That Error and Pillar of Antinomianism’: Eternal Justification,”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223-62.

칭의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동적 칭의는 능동적 칭의를 기초로 한다. 이 구분은 칭의 행위를 보다 적절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It should be borne in mind, however, that the two cannot be separated. The one is based on the other. The distinction is simply made to facilitate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act of justification].”<sup>20</sup>

요약하자면, 별코프가 말하는 능동적 칭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결정이다. 인간의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는 수동적 혹은 주관적 칭의는 능동적 혹은 객관적 칭의에 근거한다.

## 2. 아브라함 카이퍼의 빛 아래서 보는 능동적 칭의 개념

아브라함 카이퍼<sup>21</sup>는 구원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신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sup>22</sup> 카이퍼의 칭의론은 인간의 믿음을 통한 “주관적 칭의”(subjectieve rechtvaardiging)가 일어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를 “객관적 칭의”(objectieve rechtvaardiging)로 상징한 후 객관적 칭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의 저작 곳곳에서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3</sup> 카이퍼에게 있어서 객관적 칭의는 믿음 전(ante fidem)에 존재하는

<sup>20</sup> Berkhof, *ST*, 517.

<sup>21</sup> 아브라함 카이퍼의 전반적인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저서로는 Jeroen Koch,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Amsterdam: Boom, 2006); G. Puchinger, *Abraham Kuyper: de jonge Kuyper (1837-1867)* (Franeker: Wever, 1987); Jan de Bruijn,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trans. Dagmare Houniet (Grand Rapids: Eerdmans, 2014); James D. Bratt,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 Eerdmans, 2013); Richard J. Mouw,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11); James Edward McGoldrick, *God's Renaissance Man: The Life and Work of Abraham Kuyper*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0) 등을 참고하라.

<sup>22</sup> Park, *Driven By God*, 188-204.

<sup>23</sup> Abraham Kuyper, *Dictaten dogmatiek: College-Dictaat van een der Studenten*, 5 vols. 2<sup>nd</sup> ed. (Grand Rapids: J. B. Hulst, 1910), 4:64 & passim(Locus de salute,



하나님의 법정적 판결 행위인데 이 행위가 객관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판결은 인간의 주관적인 믿음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sup>24</sup>

사실 카이퍼는 그의 주저작물 가운데서 ‘능동적 칭의’란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는다. 오히려 카이퍼는 알렉산더 폼리(Alexander Comrie, 1706-1774)<sup>25</sup>의 생애와 신학에 대해 글을 쓰면서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카이퍼는 그 글에서 이 구분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긍정을 표하고 있다. “나는 영국의 무상 은혜 분파에 대항하여 [능동과 수동 사이의] 정교한 구별을 따라간다.”<sup>26</sup> 여기서 말하는 영국의 무상 은혜 분파(English Free Grace sect)는 17세기 초중반 영국의 반율법주의자(Antinomian)<sup>27</sup>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칭의론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인간의 수단적 믿음을

§4. De justificatione).

- 24 Kuyper, *Dictaten dogmatiek*, 4:64. “De justificatio is eene rechterlijke uitspraak en die is niet afhankelijk van het al of nietaannemen van hem ... des Heeren is niet afhankelijk van hetgeen de mensch in zijn geloof doet ...”
- 25 알렉산더 폼리와 존 칼빈의 칭의론을 비교 논구한 필자의 소논문 박재은, “칭의의 6종 원인에 대한 알렉산더 폼리와 존 칼빈의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 『갱신과부흥』 20 (2017): 51-85도 참고하라.
- 26 Abraham Kuyper, “Alexander Comrie: Lessons from His Career,” *Catholic Presbyterian* 7 (1882): 279n\*(279페이지에 있는 각주에 번호가 달려 있지 않고 \*로 각주 표기가 되었으므로 279n\*으로 각주 처리함).
- 27 17세기 초중반 영국 반율법주의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학문적 논의가 대단히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특별히 반율법주의자들의 칭의론은 이 논의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다. 그 이유는 칭의론의 영역에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반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성화론이 이 주제에 있어서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필독서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Mark Jones, *Antinomianism: Reformed Theology’s Unwelcome Guest?* (Phillipsburg: P&R Pub., 2013); T. D. Bozeman, *The Precisianist Strain: Disciplinary Religion & Antinomian Backlash in Puritanism to 163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David Como, “Puritans and Heretics: The Emergence of an Antinomian Underground in Early Stuart England” (Ph.D. diss., Princeton University, 1999); Hans Boersma, *A Hot Pepper Corn: Richard Baxt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Its Seventeenth-Century Context of Controversy* (Zoetermeer: Uitgeverij Boekencentrum, 1993); Carl R. Trueman, *The Claims of Truth: John Owen’s Trinitarian Theology*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8).

약화시켰던 무리를 뜻한다.<sup>28</sup> 카이퍼는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에게도 적절한 책임을 지우기 위해 폼리가 구체적으로 전개했던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을 따라간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sup>29</sup> 카이퍼의 설명에 따르면 능동적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며, 수동적 칭의는 “능동적 칭의의 최종 결정이 개별적인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sup>30</sup> 이는 앞에서 살펴본 벌코프의 개념 정리와 매우 유사하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은 객관적·주관적 칭의 구분법과 동일한 개념이다. 카이퍼는 지속적으로 객관적 칭의를 “칭의 그 자체”(rechtvaardigmaking zelve)로 불렀으며, 주관적 칭의를 객관적 칭의의 “공포” 혹은 “선포”(afkondiging)라고 불렀다.<sup>31</sup> 카이퍼는 칭의 그 자체인 객관적 칭의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역설했다. 그 이유는 칭의의 근거가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식의 능력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이퍼에게 있어서 칭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자리에서”(in de heilige vierschaar Gods)<sup>32</sup> 일어나는 신적 판결에 근거해야만 했다. 인간의 주관적 선택이나 행위, 믿음의 결정 등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판결을 객관적 칭의라 불렀고 이 객관적 칭의가 칭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카이퍼는 보았던 것이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이러한 객관적 칭의는 주관적 칭의의 국면에서 믿음을

28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26-33.

29 Kuyper, “Alexander Comrie,” 279n\*. 카이퍼의 칭의론이 소위 ‘영원 칭의론’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 자체로 논의의 폭이 큰 주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원 칭의론의 정의가 인간의 믿음을 완전히 거세하는 칭의 개념이라면 카이퍼의 칭의론을 영원 칭의론으로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Park, *Driven By God*, 199-202를 참고하라.

30 Kuyper, “Alexander Comrie,” 279n\*.

31 Abraham Kuyper, *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88-9), 2:222-23.

32 Kuyper, *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 2:222.

통해 신자에게 공포되고 반포된다. 카이퍼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객관적 칭의의] 공포는 첫 번째 칭의가[즉 객관적 칭의가] 우리의 의식 속에 공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 특정 시간에 일어난다.”<sup>33</sup>

요약하자면, 카이퍼는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과 동일 개념인 객관적·주관적 칭의 구분법을 사용하여 칭의의 근거를 주관성이 아닌 객관성에 놓고 싶어 했다. 즉 칭의의 궁극적 주체를 하나님으로 상정한 후 믿음을 통한 수동적 칭의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의 그 자체인 객관적 칭의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이다.

### III.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신학적 반응

#### 1. 틱턴의 능동적 칭의 개념 비판<sup>34</sup>

틱턴이 능동적 칭의 개념을 비판할 때는 카이퍼를 염두하고 있지는 않다.<sup>35</sup> 오히려 틱턴은 벌코프가 말하는 능동적 칭의 개념을 반대하는 것에만 주력한다. 하지만 벌코프가 말하는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 자체를 전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칭의를 객관적·주관적 혹은 하나님의 법정·양심의 법정에서의 칭의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에는 분명 신학적 유의 이 있다고 틱턴은 언급한다.<sup>36</sup>

33 Kuyper, *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 2:222. “Wel is er een bepaald moment in ons leven, waarin deze rechtvaardigmaking voor het eerst in onze eigen consciëntie wordt afgekondigd.”

34 이를 위해 Park, *Driven By God*, 76-81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차용했음을 밝힌다.

35 그러므로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틱턴의 비판은 능동적 칭의 개념의 장구한 교리적 역사를 간과한 측면이 존재한다. 능동적 칭의 개념의 장구한 교리적 역사에 대해서는 앞의 각주 14번을 참고하라.

36 Tipton, “Biblical Theology,” 8. 칭의를 하나님의 법정(*in foro Dei*)과 양심의 법정(*in foro conscientiae*)으로 구분해 이해하는 것은 사실 벌코프 고유의 것은 아니다. 17세기 개혁 신학자였던 윌리엄 펨블(William Pemble, c.1591-1623)이나 윌리엄 트위쎄(William Twisse, c.1577-1646)의 글 속에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구분법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William Pemble, *Vindiciae Gratiae. A Plea for Grace More Especially*

그러나 티턴이 별코프와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은 바로 능동적 칭의와 믿음과의 우선순위 부분이다. 즉 별코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약 능동적 칭의가 논리적으로 믿음 전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결국 ‘이신칭의’(以信稱義, justification by faith)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혼탁”하게 만들며 이것이야말로 성경적 진리에 거스르는 주장이므로 “문제가 야기”된다고 티턴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sup>37</sup> 티턴에게 있어서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sola fide*). 그러나 능동적 칭의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므로 결국 이는 “오직 믿음”의 원리를 깨트리는 것이므로 반드시 “거부되어야 할” 개념이라고 티턴은 주장하는 것이다.<sup>38</sup>

이 뿐만 아니라 티턴은 또 다른 논리로 별코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대한 부분이다. 티턴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능동적 칭의 개념은 주관적 믿음 전에 이루어지는 개념이므로 결국 믿음의 작용 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도 불가능하므로 결국 능동적 칭의 개념 하에서는 의의 전가는 “법정적 허구”(legal fiction)<sup>39</sup> 혹은 “사법적 선언”(judicial declaration)<sup>40</sup> 정도에 그치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티턴의 비판은 모두 ‘믿음’의 위치와

*the Grace of Faith. Or, Certain Lectures as Touching the Nature and Properties of Grace and Faith* (London: Humphrey Lownes, 1629), 21-22; William Twisse, *Vindiciæ gratiæ, potestatis, ac providentiæ Dei; hoc est, ad examen libelli perkinsiani de prædestinationis modo et ordine, institutum a J. Arminio, responsio scholastica, tribus libris absoluta* (Amsterdam: Ioannem Ianssonium, 1632), 2.4.4 (p.79).

<sup>37</sup> Tipton, “Biblical Theology,” 8.

<sup>38</sup> Tipton, “Biblical Theology,” 10.

<sup>39</sup> 사변적(思辨的, speculative)인 것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신학의 참된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무한한 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학은 그 본질상 ‘형이상학’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는 박재은,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 『교회와 문화』 37 (2016): 135-65를 참고하라.

<sup>40</sup> Tipton, “Biblical Theology,” 9-10.

관련 있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믿음 전에 위치하는 개념이므로 이신칭의 원리와 배치되며 결국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또한 불가능하므로 능동적 칭의 개념은 결국 법정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틱턴은 다음과 같이 강하게 주장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변적 교리를 제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즉 능동적 칭의 개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명백한 성경적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sup>41</sup> 과연 틱턴의 이러한 주장은 정당한가? 이에 대한 답을 아래에서 내려 보겠다.

## 2. 틱턴의 견해에 대한 반박

틱턴이 왜 능동적 칭의 개념을 비판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로마서 10:10)<sup>42</sup>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틱턴의 주장은 사실 매우 귀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틱턴은 능동적 칭의 개념을 오해한 채 이신칭의 원리를 능동적 칭의 개념에 잘못 적용하고 있다. 틱턴은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해 총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3</sup> 이러한 오해가 해결되지 않는 한 능동적 칭의에 대한 틱턴의 비판은 그 신학적 적실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첫째, 틱턴이 능동적 칭의 개념을 비판하는 주된 이유는 능동적 칭의가 믿음 전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이는 이신칭의 원리와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다.<sup>44</sup> 이를 자세히 뜯어보면 마치 틱턴은 다음과 같이 생각

41 Tipton, “Biblical Theology,” 12. 사실 틱턴은 벨코프의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비판을 불과 12페이지 정도 밖에 안 되는 자신의 취임연설에서 짧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풍성하지 않으며 동시에 신학적으로 심도 있는 논지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여타 논의를 예를 들면 능동적 칭의 개념과 구원의 서정(*ordo salutis*)과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를 틱턴의 글로부터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42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καρδία γὰρ πιστεύεται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στόματι δὲ ὁμολογείται εἰς σωτηρίαν).

43 틱턴의 신학적 오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Park, *Driven By God*, 78-81을 참고하라. 지금부터는 이 논의를 요약 진술하며 진행하도록 하겠다.

44 Tipton, “Biblical Theology,” 8-10.

하고 있는 듯하다. 죄인의 칭의는 능동적 칭의에서 믿음 없이 완료된다. 그러므로 이는 이신칭의 원리와 배치된다. 하지만 별코프의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에서 칭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국면은 틱턴이 생각하듯 능동적 칭의가 아니다. 죄인의 칭의는 능동적 칭의에서 믿음 없이 완료되지 않는다. 오히려 별코프는 죄인의 칭의는 수동적 혹은 주관적 칭의 국면에서 믿음으로 완료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별코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죄인에게 전달될 수 없는 순전히 객관적인 칭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죄인 자신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감옥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sup>45</sup> 즉 칭의의 완료는 믿음 전 능동적·객관적 칭의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수동적·주관적 칭의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sup>46</sup> 별코프에게 있어서 죄인의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결정이 믿음을 통해 주관화되어 양심의 법정에서 오직 믿음을 통해(*sola fide*) 이루어지는 과정을 밝힌다. 그러므로 틱턴의 주장처럼 죄인의 칭의는 능동적 칭의 국면에서 믿음 없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 점을 틱턴은 오해하고 있다.<sup>47</sup>

45 “A purely objective justification that is not brought home to the sinner would not answer the purpose. The granting of a pardon would mean nothing to a prisoner, unless the glad tidings were communicated to him and the doors of the prison were opened.” Berkhof, *ST*, 517.

46 본고에 대한 필자의 2016년 개혁신학회 봄 학술대회 발제에서 좌장을 맡은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는 구원의 서정 내에서 이미 믿음이 존재하는데 왜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 하에서 수동적 칭의 영역에서만 믿음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의문을 가졌다. 하지만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은 구원의 서정 내에서의 다른 요소들(부르심, 중생, 믿음 등)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칭의 그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구분되는 칭의가 일어나는 영역들(그러므로 별코프는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을 칭의의 영역[sphere] 부분에서 다룬다)에 대한 이야기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능동적 칭의 개념과 구원의 서정과 관계성 문제는 이후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에는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문병호 교수와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 주신 백석대학교 김은수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47 비치우스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경륜들』(*De oeconomia foederum Dei cum hominibus*)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크룩셱크(William Crookshank)는 각주에서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을 설명하면서 능동적 칭의 개념을 “법령적”(decretive) 혹은 “사실상의” 혹은 “실효성을 지니는”(virtual) 칭의로, 수동적 칭의 개념을 “실제적”(actual) 칭의

둘째, 틱턴은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이 서로 '불가분'의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 하지 않은 채 비판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오해이다. 왜냐하면 만약 벨코프가 주장하듯 능동적 칭의(논리적으로 믿음 전)와 수동적 칭의(논리적으로 믿음 후)가 불가분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sup>48</sup> 능동적 칭의 개념이 이신칭의 원리와 배치된다는 주장은 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믿음 전에 위치한 능동적 칭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반대로 믿음 후에 위치한 수동적 칭의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분리 될 수 없으며 수동적 칭의는 능동적 칭의에 근거하여 불가분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sup>49</sup> 능동적·수동적 칭의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분성은 이미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에 의해 일찍이 줄곧 강조되었다. 바빙크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칭의 국면은 구원의 사슬 안에서 “하나의 연결”(ééne schalm)<sup>50</sup>을 이루며, 두 국면 간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만 시간 안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바르게 언급한다.<sup>51</sup> 틱턴의 비판은 이 불가분성 아래서 그 신학적 정당성이 무색해진다. 왜냐하면 ‘하나의 연결’로 볼 때 비록 논리적으로 믿음 전에 위치한 능동적 칭의 개념도 믿음 후에 위치한 수동적 칭의 개념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틱턴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서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믿음

---

라고 옳게 부연한다. Witsius, *Economy*, 1:248n\*. 크룩생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인 죄인의 칭의는 능동적 칭의 국면이 아닌 수동적 칭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48 Berkhof, *ST*, 517.

49 Berkhof, *ST*, 517.

50 Herman Bavinck, *Magnalia Dei: Onderwijzing in de Christelijke Religie naar Gereformeerde Belijdenis* (Kampen: Kok, 1909), 521. 영역본으로는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trans. Henry Zyl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6), 459를 참고하라. 바빙크의 칭의론에 대해서라면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111-23을 참고하라.

51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4th ed. (Kampen: Kok, 1930), 4:203 (§51.475). “[E]r is hier een prioritas ordinis, doch een simultaneitas temporis.” 영역본으로는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ed. John Bolt, trans.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4:219를 참고하라.

전에 위치한 능동적 칭의 개념은 기껏해야 법정적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sup>52</sup> 주관적 믿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인 능동적 칭의 국민에서는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될 수 없고 실제로 의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의의 전가는 사법적 선언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 사이의 불가분성의 빛 아래서 볼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믿음을 통해 수동적 칭의 국민에서 이루어진다. 카이퍼와 벌코프가 언급한 것처럼 능동적 칭의 국민에서는 죄인의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다.<sup>53</sup>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포는 믿음을 통해 수동적 칭의의 국민에서 '실체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와 그 선포의 실체화는 서로 단독적으로 독립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실체화(수동적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포(능동적 칭의)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능동적 칭의 개념은 틱턴이 주장하듯 단순한 법정적 허구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능동적 칭의 개념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실체화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신학적 근거요 토대이다.

요약하자면,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틱턴의 비판은 그 신학적 근거가 대단히 얇다.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에 대해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신칭의 원리를 이 구분법에 무리하게 적용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신학적 혼동 혹은 불필요한 오해뿐이다. 죄인의 실제적 칭의는 능동적 칭의의 국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 인간의 양심의 법정에서 실제적 칭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은 칼로 무 배듯 서로 날카롭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요한 지점을 틱턴은 간과하고 있다.

52 Tipton, "Biblical Theology," 9-10.

53 Berkhof, *ST*, 517.



#### IV. 능동적 칭의 개념의 신학적·실천적 중요성과 필요성

그렇다면 능동적 칭의 개념은 왜 중요할까? 심지어 능동적 칭의 개념을 비판하는 틱턴조차도 능동적 칭의 개념은 일면 “고귀”(noble)<sup>54</sup>한 부분이 있다고까지 언급한다. 본고의 주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능동적 칭의 개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균형 잡힌 칭의 교리 교육을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첫째, 칭의를 “하나님의 주권 vs. 인간의 책임”이라는 구도 하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sup>55</sup>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하에 있으므로 칭의 교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교리로 일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교회 역사 면면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칭의의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된 순간이 많았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 칭의론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형태의 신율법주의 칭의론도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신학적 연속성 상에 놓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칭의의 영역에서 인간의 역할·책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성은 비단 과거 교회 역사 속에서의 일 만은 아니다. 근현대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신율법주의 칭의론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는 페더럴 비전, 바울에 대한 새 관점(NPP)이라는 이름으로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명위를 활발히 떨치고 있다.<sup>56</sup>

이제 칭의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능동적 칭의 개념이 가능하게끔 만든다. 벌코프의 설명에서 이미 살펴보았

<sup>54</sup> Tipton, “Biblical Theology,” 12.

<sup>55</sup> Cf.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61-99.

<sup>56</sup> 페더럴 비전이나 NPP에 대한 논의가 본고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61-99; 이승구,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N.T. 라이트의 신학적 기여와 그 문제점』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3).

듯이 능동적 칭의 개념은 주관성이 배제된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칭의 선언이다. 칭의의 시작은 이러한 객관적인 능동적 칭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칭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칭의 선언이 되어야지 주관적인 믿음이나 인간의 행위 혹은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능동적 칭의 개념이 밝히 드러낸다. 칭의의 시소계임에서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책임역할이 더 강조되어 균형을 잃은 작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칭의 주권을 확보케 만드는 능동적 칭의 개념은 균형 잡힌 칭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둘째, 그렇다면 능동적 칭의 개념의 강조는 인간의 역할 및 책임을 약화시키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벌코프가 강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죄인의 칭의는 인간의 양심의 법정에서 믿음을 통해 비로소 실체화가 된다.<sup>57</sup> 그러므로 인간의 믿음의 역할과 책임은 죄인의 칭의를 위해서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믿음은 절대로 칭의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 내부의 능력으로부터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다(엡 2:8).<sup>58</sup> 칭의에서 믿음과 관계된

57 2016년 개혁신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본 발제의 논평을 맡은 고신대학교 이신열 교수는 능동적 칭의 개념 강조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구도화 했고, 틱턴의 주장을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개념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옹계 구도화 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칭의 사건을 바라볼 때 두 강조점 중에서 어떤 한 강조점의 지나친 강조 혹은 배제 없이 두 강조점 모두 균형 있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τῆ γὰρ χάριτι ἔστε σεσωσμένοι διὰ πίστεως καὶ τοῦτο οὐκ ἔξ ὑμῶν, θεοῦ τὸ δῶρον).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절은 칭의와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지적한다.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 되,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으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써,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Philip Schaff, 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3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3:626 (한글 번역은 김효성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수동적 칭의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능동적 칭의 국면에서는 인간이 칭의의 방정식에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객관적인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능동적 칭의 개념 강조의 실천적 유익은 무엇인가? 먼저 능동적 칭의 개념은 본인이 칭의 된 자인지 아닌지 불안해하는 성도에게 칭의의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는 구원의 확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sup>59</sup> 스스로를 돌아볼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죄인의 칭의 선포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제공한다. 죄인의 의롭게 됨은 자신의 행위, 심지어는 믿는 행위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객관적인 칭의 선언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굳건한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능동적 칭의 개념은 매일 매일 짓는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허우적대는 성도들에게 칭의 된 자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이 땅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지만(히 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재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능동적 칭의 개념의 또 다른 실천적 강점이다.<sup>60</sup>

요약하자면, 능동적 칭의 개념은 신학적으로는 칭의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훌륭한 신학적 장치로 사용될 수 있으며,<sup>61</sup> 실천적으로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을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옛신앙, 2013), 42-43을 인용함).

59 구원의 확신에 대한 훌륭한 연구서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Joel R. Beeke, *Assurance of Faith: Calvin, English Puritanism, and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ew York: P. Lang, 1991).

60 능동적 칭의 개념의 실천적 중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Park, *Driven By God*, 209-20을 참고하라.

61 신학에서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예정론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책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인 Jae-Eun Park, “John Plaihere (d.1632) on Conditional Predestination: A Well-mixed Version of *scientia media* and Resistible Grace,”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8.2 (2016): 155-73을 참고하라), 속죄론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역할책임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이에

굳건케 만들뿐 아니라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V. 나가는 말

개혁신학 내에서 탄탄하고 장구한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법에 대한 논의는 안타깝게도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근자에 루이스 별코프의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레인 토티의 비판이 잔잔했던 논의에 작은 돌을 하나 던졌다. 하지만 능동적 칭의 개념에 대한 토티의 비판은 그 신학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토티의 비판은 능동적·수동적 칭의 구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로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주관적 믿음 전에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칭의 선언이다. 이러한 능동적 칭의 개념은 단독적으로 실체화되지 않고 죄인의 양심의 법정에서 믿음을 통해 수동적 칭의의 국면에서 실체화된다. 그러므로 능동적·수동적 칭의 개념은 서로 날카롭게 분리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불가분의 개념들이다.<sup>62</sup>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능동적 칭의 개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신칭의 원리를 지지하며 이신칭의 원리의 객관적인 신학적 토대를 구축한다.

능동적 칭의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역할이라는 두 날개의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특별히 현대 칭의 교리들이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는데 능동적 칭의 개념은 무너진 균형의 추를 다시 돌려놓을

대해서는 필자의 논의인 박재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속죄론: 스티븐 웨스트의 속죄론과 비교해 본 에드워즈의 객관적, 주관적 속죄 측면 사이의 균형,” 『개혁논총』 33 (2015): 75-115를 참고하라).

62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106-11.

훌륭한 신학적 장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실천적 함의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칭의 선언은 구원의 불확실성과 영적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확신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칭의는 인간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칭의 선언이 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점을 올바르게 확보하기 위해 능동적 칭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개념이다.

**[Abstract]****A Study on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Concept of Active Justification**

Jae-Eun Park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Louis Berkhof uses the distinction between active justification and passive justification to further elucidate the sphere of justification as a whole. Similarly, Abraham Kuyper also uses the distinction between objective justification and subjective justification. While the term active justification(or objective justification) describes the sinner's righteousness proclaimed by divine decree in the court of God, passive justification(or subjective justification) describes the sinner's appropriation by faith of that righteousness in the court of the human. Even though the concept of active justification is theologically valid and practically useful, the idea has been criticized by Lane Tipton. This study argues that Tipton's criticism is untenable as it is based on a misconception of active justification per se. The study shows that active justification is a valid theological term that effectively describes God's sovereignty in perfect balance with human responsibility in the sphere of justification. In addition, the idea of active justification provides a practical tool to aid true believers in overcoming spiritual defeatism.

**Key Words:** Active justification, Louis Berkhof, Abraham Kuyper, Lane Tipt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 [참고문헌]

- 박재은.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 하나님의 주권 대 인간의 역할, 그 사이에서 바라본 칭의』.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_\_\_\_\_. “16-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의 형이상학 이해.” 『교회와 문화』 37 (2016): 135-165.
- \_\_\_\_\_.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알렉산더 폼리와 존 칼빈의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 『갱신과부흥』 20 (2017): 51-85.
- \_\_\_\_\_. “조나단 에드워즈의 속죄론: 스티븐 웨스트의 속죄론과 비교해 본 에드워즈의 객관적, 주관적 속죄 측면 사이의 균형.” 『개혁논총』 33 (2015): 75-115.
- 이승구.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N.T. 라이트의 신학적 기여와 그 문제점』.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13.
- Bavinck, Herman. *Magnalia Dei: Onderwijzing in de Christelijke Religie naar Gereformeerde Belijdenis*. Kampen: Kok, 1909.
- \_\_\_\_\_. *Gereformeerde Dogmatiek*. 4th Edition. Kampen: Kok, 1930.
- \_\_\_\_\_. *Our Reasonable Faith*. Translated by Henry Zyl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6.
- \_\_\_\_\_. *Reformed Dogmatics*. Vol. 4. Edited by John Bolt. Translated by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Beeke, Joel R. *Assurance of Faith: Calvin, English Puritanism, and the Dutch Second Reformation*. New York: P. Lang, 1991.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벌코프 조직신학』. 권수경·이상원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 Beisner, E. Calvin, ed. *The Auburn Avenue Theology, Pros and Cons: Debating the Federal Vision*. Fort Lauderdale: Knox Theological Seminary, 2004.
- Boersma, Hans. *A Hot Pepper Corn: Richard Baxter's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Its Seventeenth-Century Context of Controversy*.

- Zoetermeer: Uitgeverij Boekencentrum, 1993.
- Bozeman, T. D. *The Precisianist Strain: Disciplinary Religion & Antinomian Backlash in Puritanism to 1638*.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4.
- Brakel, Wilhelmus à. *The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Edited by Joel R. Beeke. Translated by Bartel Elshout. 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2.
- Bratt, James D. *Abraham Kuyper: Modern Calvinist, Christian Democrat*. Grand Rapids: Eerdmans, 2013.
- Bruijn, Jan de. *Abraham Kuyper: A Pictorial Biography*. Translated by Dagmare Houniet. Grand Rapids: Eerdmans, 2014.
- Como, David. "Puritans and Heretics: The Emergence of an Antinomian Underground in Early Stuart England" Ph.D. Dissertation. Princeton University, 1999.
- Halyburton, Thomas. *An Essay on the Ground or Formal Reason of Saving Faith to Which Are Added, 2 Essays, Illustrative of the Subject of Justification*. London, 1865.
- Heidegger, Johann Heinrich. *Corpus theologiae christianae*. Vol. 2. Zürich: Ex officina Heideggeriana, 1732.
- Jones, Mark. *Antinomianism: Reformed Theology's Unwelcome Guest?* Phillipsburg: P&R Pub., 2013.
- Keckermann, Bartholomäus. *Systema S.S. Theologiae: Tribvs Libris adornatum*. Hanoviae: Antonius, 1610.
- Koch, Jeroen. *Abraham Kuyper: een biografie*. Amsterdam: Boom, 2006.
- Kuyper, Abraham. *Dictaten dogmatiek: College-Dictaat van een der Studenten*. 5 Vols. 2<sup>nd</sup> Edition. Grand Rapids: J. B. Hulst, 1910.
- \_\_\_\_\_. "Alexander Comrie: Lessons from His Career." *Catholic Presbyterian* 7 (1882): 278-284.



- \_\_\_\_\_. *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 3 Vols. Amsterdam: J. A. Wormser, 1888-9.
- Maccovius, Johannes. *Scholastic Discourse: Johannes Maccovius (1588-1644) on Theological and Philosophical Distinctions and Rules*. Translated by Willem J. Van Asselt et al. Apeldoorn: Instituut voor Reformatieonderzoek, 2009.
- McGoldrick, James Edward. *God's Renaissance Man: The Life and Work of Abraham Kuyper*. Darlington: Evangelical Press, 2000.
- Maresius, Samuel. *Collegium theologicum sive systema breve universae theologiae, comprehensum octodecim disputationibus*. Geneva, 1662.
- McKelvey, Robert J. "‘That Error and Pillar of Antinomianism’: Eternal Justification." In *Drawn into Controversie: Reformed Theological Diversity and Debates within Seventeenth-Century British Puritanis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Mouw, Richard J. *Abraham Kuyper: A Short and Personal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11.
- Packer, J. I. *A Quest for Godliness: The Puritan Vision of the Christian Life*. Wheaton: Crossway Books, 1990.
- Park, Jae-Eun. *Driven By God: Active Justification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Bavinck, Comrie, Witsius, and Kuyp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8(출간예정).
- \_\_\_\_\_. "Driven by God: Active Justification and Definitive Sanctification in the Soteriology of Bavinck, Comrie, Witsius, and Kuyper." Ph.D. Dissertation,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16.
- \_\_\_\_\_. "John Plaifere (d.1632) on Conditional Predestination: A Well-mixed Version of *scientia media* and Resistible Grace."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18.2 (2016): 155-173.

- Pemble, William. *Vindiciae Gratiae. A Plea for Grace More Especially the Grace of Faith. Or, Certain Lectures as Touching the Nature and Properties of Grace and Faith*. London: Humphrey Lownes, 1629.
- Price, Timothy S. "John Calvin and Herman Bavinck on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in Relation to Ethics." In *Since We Are Justified by Faith: Justification in the Theologies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 Edited by Michael Parsons, 138-149. Milton Keynes: Paternoster, 2012.
- Puchinger, G. *Abraham Kuyper: de jonge Kuyper (1837-1867)*. Franeker: Wever, 1987.
- Rijssen, Leonard. *Summa theologiae elencticae completa et didacticae quantum sufficit*. Bern: Georgii Sonleitneri, 1676.
- Schaff, Philip, ed.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In *The Creeds of Christendom with A History and Critical Notes*, 3 Vol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19.
- Tipton, Lane G. "Biblical Theology and the Westminster Standards Revisited: Union with Christ and Justification *Sola Fide*."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75, no. 1 (January 2013): 1-12.
- Trueman, Carl R. *The Claims of Truth: John Owen's Trinitarian Theology*. Carlisle: Paternoster Press, 1998.
- Twisse, William. *Vindiciæ gratiæ, potestatis, ac providentiæ Dei; hoc est, ad examen libelli perkinsiani de prædestinationis modo et ordine, institutum a J. Arminio, responsio scholastica, tribus libris absoluta*. Amsterdam: Ioannem Ianssonium, 1632.
- Turretin, Francis. *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Edited by James T. Dennison. Translated by George Musgrave Giger. Phillipsburg: P&R Publishing, 1992.
- Van Leeuwen, Theodoor Marius, Keith D. Stanglin, and Marijke

Tolsma, eds. *Arminius, Arminianism, and Europe: Jacobus Arminius (1559/60-1609)*. Leiden: Brill, 2009.

Witsius, Herman. *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 Comprehending a Complete Body of Divinity*. Translated by William Crookshank. Edinburgh, 1803.

Wytttenbach, Daniel. *Tentamen theologiae dogmaticae methodo scientifica pertractatae*. Francofurti ad Moenum: Andreae et Hort, 1747.